


**오늘의
게시판**
제 61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 오전 10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행사 **9일**
 ▲제 61회 구강보건의 날 행
 사=오전 10시 치평동 광주학생
 교육문화회관(구강 보건상 시상식 및 시민구강건
 강강좌). 오전 9시 구동체육관(제 16회 광주시 치
 과가족 체육대회).

▲제 489회 장성아카데미=오후 4시30분 장성
 군청 4층 대회의실. 성윤간 관세청장이 '세관의 재
 미있는 혁신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

▲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연수회=오전 7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연회장. 노성태(한국경제
 연구원장)씨가 강사로 '하반기 한국경제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

▲제 8회 원도군 읍·면 노인민속경연대회=오
 전 10시30분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성교육 인형극 교육=오전 10시 담양군 문화

회관 대공연장.
 <10일>
 ▲제 15회 전남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축구대
 회=11일까지 담양군 남도대·남양공고.

▲연극 생활의 밤=9일(금)
 오후 7시30분 궁동 예술극장.

▲광주시립무용단 제 86회 정
 기공연 '이순신'=9·10일 오후 5시, 7시30분 광주
 문예회관 대극장.

▲광신대 음악학과 정기연주회=9일(금)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뮤지컬 '꼬마돼지와 울프'=10~11일 오후 2
 시, 4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이스라엘 작가 데이비드 걸
 스타인 개인전=30일까지 가나
 아트 2층 공예관. 조각·오브제·

테이블·아트상품 등 13점 전시.
 ▲윤보숙 개인전=15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얼굴사진전 '최윤규 포트레이트'=14일까지
 롯데화랑.

▲김병모 개인전=14일까지 창갤러리. 풍경·정
 물·누드 등 작품 50여점 전시.

▲선·후·인·전=14일까지 무등갤러리. 강진
 희·김미성·김지현·김왕주씨 등 작품 전시.

▲정덕영 도예전=14일까지 서구 문화센터 갤
 러리 쇼.

▲유명렬 '정든 산하전'=11일까지 상계갤러리.
 자리산과 설악산 절경 등 30여점 전시.

▲꿈, 너에게 말을 걸다 10인전=21일까지 각화
 문화의 집 문화관람실.

▲광주 현대미술 특별기획 초대전=14일까지

문화갤러리. 고 강용운·양수아·최종섭·김영길 화
 백 등 작품 전시.

▲무등골 예술시장 프리마켓전 '푸른6월'=13
 일까지 일곡갤러리.

▲5·18 관련 그림 및 사진전=30일까지 5·18기
 념문화센터 전시장.

▲현대사전전 '앵글의 휴먼티'=25일까지 시
 립미술관 분관.


역사속의 오늘

▲네로 황제 자결(68)

▲독일의 하인리히 국왕 군함으로 인천 도착
 (1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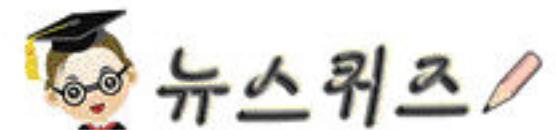
▲지아의 날 제정(1947)

▲한국일보 창간(1954)

▲제2차 통화개혁 발표(1962)

▲야당의 박상상 의원 길거리에서 피습(1966)

▲티토 유고 대통령, 학생 데모에 대해 잘못 시
 인하고 대학제도개혁 약속(1969)



15. 꿈의 축구 제전인 월드컵이 오는 10일 새벽 1
 시(한국시간) 개최국 독일과 코스타리카의 개막전
 을 시작으로 한달간 펼쳐집니다.

개막전이 열리는 도시는 독일 축구의 성지로 불
 리는 곳으로, 이 곳에 있는 경기장인 알리안츠 아레
 나이는 FIFA 월드컵 홈페이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특
 이한 경기장의 하나로 꼽았을 만큼 독특한 디자인
 을 자랑하는 경기장입니다.

이 곳은 어디일까요?

① 뮌헨 ② 런던 ③ 파리 ④ 도쿄

검색결정 키워드
검색
노출의 계절 랭킹리록 유행

기도 했다.

기상캐스터 출신의 안혜경은 프리선언 이후 지
 날 4월 1일 첫 방송된 MBC 주말 연속극 '진짜 진
 짜 좋아해'에서 영양사 노진경 역으로 출연하고
 있다.

노출의 계절이 왔다. 올 여름도 지난해와 마찬
 가지로 점점 더 몸매를 드러내는 추세에 따라 노
 출채선이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마치 속
 웃처럼 보이는 모호한 웃을 걸어처럼 입는 랭킹리
 록이 화제의 검색어에 올랐고, 인터넷 사이트 등
 에서는 랭킹리록을 둘보이게 입는 다양한 연출법,
 어깨를 드러내면서 끈으로 섹시미를 강조한 스타
 일 등이 선보이고 있다.

그룹 슈가 출신 황정음이 CF에서 선보인 '아이
 상실 댄스'도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황정음은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의 CF에 출연,
 5명의 남성을 앞에 두고 약속한 시선으로 미니스
 커트 자락을 살짝 내리며 몸을 굽히는 댄스를 선보

였는데, '이유 없이 웃음을 주는 CF다' '왜 아이 상
 실인지 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상실 댄
 스'라는 이름은 섹시하면서도 어딘가 모자라 보이
 는 어이없는 상황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이 지난 3일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K-1 월드그랑프리 서울대
 회 수퍼 파이트에서 지난해 K-1 챔피언 세미 슬트
 (33·네덜란드)를 판정(2-1)으로 꺾은 소식도 인
 기를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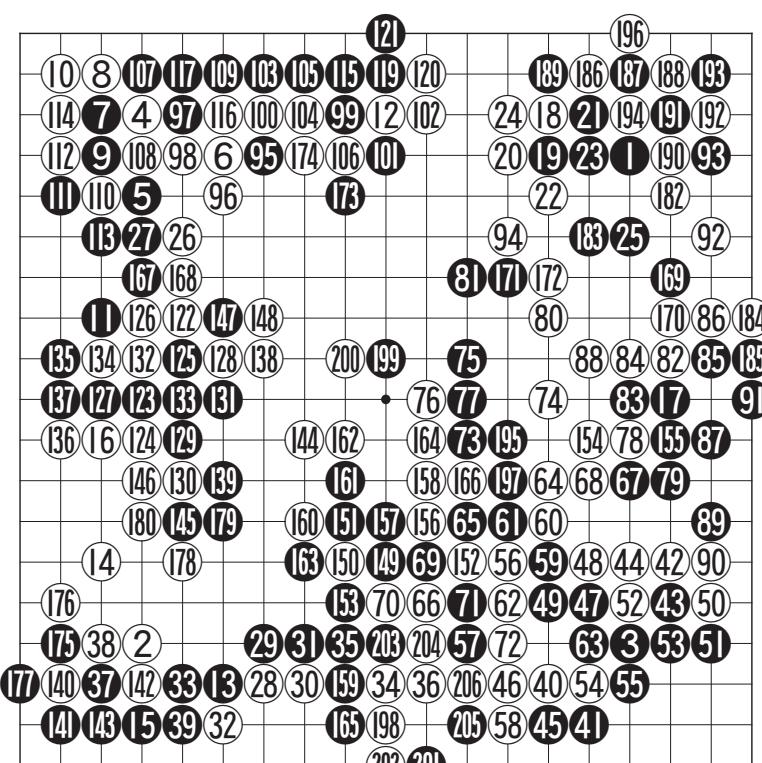
이외 5·31 지방선거 당선자와 FTA·현충일·666
 데이 등도 네티즌들의 클릭 세례를 받았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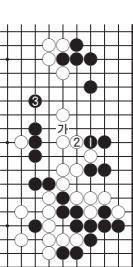
주간 급상승 검색어				
1위	나연전	6위	아이상실댄스	행운의 숫자 : 10.45
2위	김영섭	7위	선거당선자	행운의 숫자 : 10.45
3위	안혜경·하하	8위	현충일	행운의 숫자 : 10.45
4위	FTA	9위	666데이	행운의 숫자 : 10.45
5위	최홍만	10위	랭킹리록	행운의 숫자 : 10.45



최근 열애설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안혜경.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직장비밀대회**
패인 '오버 페이스' 총보(1~206)

白 김 영 수(5단) 黑 박 정 규(5단)
 <호남교사회>



두 대국자는 항
 상 우승후보로 꼽
 힐 만큼 직장 바둑
 계의 강자로 알려
 져 있다. 우승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강해야 하지만 '기
 칠운삼(抜七運三)'
 이라는 말처럼 대국 운도 따라줘야
 한다.

박정규 5단의 패인은 대국 종반 패

작을 두기는 했지만 우연에서 너무
 심하게 당한데 있다. 특히 흑 81로 한

118은 110의 곳.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 중심 SK telecom 전남본부

바둑소식
서봉수 '국수' 중의 '국수' 등극

서봉수 9단이 8일 스카이바둑 스튜
 디오에서 열린 국수전 50기 기념 역대
 국수·초청대국 결승전에서 조훈현 9단
 에게 200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서 9단은 지난 1988년 32기 대회를
 내준 이후 18년 만에 조 9단에게 당한
 패배를 설욕했다.

서 9단은 이날 중반 조 9단에게 역전
 을 허용했지만 백 136으로 우연 흑 모
 양을 없애는 큰 끝내기를 해 흐름을 뒤
 집었다.

서 9단은 하찬석 9단과 루이 9단을 차
 려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다. 조 9
 단은 윤기현 9단과 제자 이창호 9단을
 꺾고 결승에 올랐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664>

This will do
 됐습니다(잘 돌아갑니다)

A: Do you think you can fix it?

B: Here you are. This will do.

A: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B: Never mind. It was really nothing.

A: 그들을 수리할 수 있을 것 같나?

B: 네, 여기 있습니다. 잘 작동됩니다.

A: 어떻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B: 뭘요. 별것 아닌데요.

fix : 수리하다, (식사를) 준비하다,
 (음료, 요리를) 만들다(cook).

- What time shall I fix supper? 몇 시에 저녁 준비를 할까요?

- Let me fix a cup of coffee. 제가 커피를 끓여 오지요.

Never mind = You're welcome.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 Thank you very much.

오하이오 니혼고 <664>

稅關(ぜいかん)で引っ掛けちゃって
 세관에 걸려버려서

A: 今(いま)から空港(くうこう)へ行(い)くそうですね。誰(だ
 れ)かお迎(むか)えですか。

B: いいえ. この前日本からノートパソコンを買ってきました
 けど、税關(ぜいかん)で引(ひ)っ掛け(か)かっちゃって。

A: でも、自分(じぶん)で使(つか)うものなんでしょう。

B:ええ.それが新品(しんひん)なんですけど、箱に入(い)れた
 まま持(も)って来(き)たのがまずかったみたいで…

A: 지금부터 공항에 간다고 합디다만. 누구 마중 갑니까.

B: 아니오. 일본에 컴퓨터를 사 왔습니다만, 세관에 걸
 려버려서.

A: 하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B: 예에. 그것이 신작입니다만, 상자에 넣은 채로 가지고 온 것
 이 서툴렀던 것 같아요.

空港(くうこう) : 공항

誰(だれ)か : 누군가

お迎(むか)え : 마중

ノートパソコン : 노트북

니하오 층구워 <382>
给我两张成人票

어른표 두 장 주세요

A: 给我两张成人票。

Gei wǒi liang zhāng chéngrén piào.

给我 两张 成人 票。

B: 两张50元。

Liàng zhāng wǔshí yuán.